

카롤링 시대의 전례개혁과 문자개혁*

- 『드로고 전례서』를 중심으로 -

이 해 민

I. 머리말

II. 카롤링 시대의 전례개혁과 전례서

III. 『드로고 전례서』와 카롤링 시대의 문자개혁

IV. 맺음말

I. 머리말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라틴어 장서 9428번 수사본(手寫本)은 카탈로그에 『메스 미사 전례 기도집』(*Sacramentarium Mettense*)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드로고 미사 전례 기도집』(*Drogo Sacramentary*)이라 불린다(이하 『드로고 전례서』로 약칭).¹⁾ 9세기 중엽 카롤링 제국 시대에 메스(Metz)의 대주교 드로고(801/802-855)를 위해서 제작된 이 사본은 카롤링 예술의 걸작 중 하나이자,²⁾ 동시에 이 시대의 문화정책(이른바 “카롤링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유산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카롤링 시대의 세속군주들은 신정정치에 기반을 둔 권력 강화와 정치적인 통합을 모색하였고, 엘리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구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NRF-2010-361-A00018).

- 1) Paris, BnF, lat. 9428. 이 수사본의 전문은 현재 전산화되어,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온라인 전자도서관 갈리카(Gallica)에서 열람할 수 있다(<http://gallica.bnf.fr/>). 온라인 약식 카탈로그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할 것. http://www.univ-nancy2.fr/MOYENAGE/UREEF/MUSICOLOGIE/CMN/FPnlat_online_5000.htm(웹페이지 개설일: 2011. 4. 3, 업데이트: 2013. 10. 25, 검색일: 2013. 11. 17).
- 2) Jean-Pierre Caillet, *L'art carolingien*(Paris: Flammarion, 2005), pp. 221-222, 224 (fig. 148-150).

트층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지지하고 지원하였다. 특히 교회의 개혁 및 전례(典禮, liturgy)의 개혁,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신민들의 복음화(그리스도교화)는 프랑크 왕국(그리고 제국)의 통합 정책에서 핵심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언어(라틴어)의 개혁과 (성직자를 위한) 교육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고,³⁾ 동시에 많은 서적들이 필사되면서 “카롤링 르네상스”라 불리는 문화적인 발전을 일구어내었다. 이 글에서는 카롤링 시대의 미사 전례 기도집(sacramentarium)[이하 전례서로 약칭]⁴⁾ 중에서 특히 『드로고 전례서』를 중심으로, 문자와 권력의 문제를 카롤링 시대의 전례개혁과 문자개혁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전례서는 성서 및 복음집(evangeliarium)과 더불어 “카롤링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서적의 유형 중 하나이자, 이 시대의 권력관계에서 핵심을 이루는 책이기도 하다.

문자와 권력의 관계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그 중에서 사회인류학자 잭 구디는 문자에 의한 인간 사회와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지배 및 문자사용의 결과 나타나는 인간의 인식 변화에 대해서 논하면서, 책과 권력 사이에 존재하는 밀접한 연관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다.⁵⁾ 그는 또한 문학작품의 연행(혹은 공연)이나 종교의식과 같은 의례들(rites)에서 사용되는 텍스트의 구성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술문화”에서 “문자문화”로 이행을

3) Roger Wright, *Late Latin and Early Romance in Spain and Carolingian France* (Liverpool: Francis Cairns, 1982), pp. 104-122.

4) 이 글에서 가톨릭 관련 용어는 주피언 피터 랑 지음, 박요한 영식 옮김, 『전례사전』(가톨릭출판사, 2005년)과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 위원회, 『한국 가톨릭 대사전』, 2판(한국교회사연구소, 1995)에서 제시된 번역어를 주로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이 사전들을 비롯한 천주교 용어집들은 온라인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 <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search.asp>(검색일: 2013. 11. 22).

5) Jack Goody, *The Power of the Written Tradition*(Washington, 2000); trad. fr., *Pouvoirs et savoirs de l'écrit*(Paris: La Dispute/ SNÉDIT, 2007), en part. pp. 219-222. 이 저서는 1986년부터 1998년 사이의 강연문을 모아 출판한 책으로서, 서문에서 잭 구디는 특히 브라이언 스트리트(Biran Street)에 의해 제기된 비판에 대한 반론을 강력하게 제시하였다. 그런데, 책과 권력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는 제9장은 사실 새롭고 독창적인 논의를 전개하기보다는 기존에 책의 역사나 문해력의 역사에서 많이 논의되어 온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실망스럽게 느껴진다. Cf. 서구학계에서의 잭 구디에 대한 부정적 비판 및 긍정적 수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이혜민, 「문자인류학과 아르만도 페트루치의 문자연구」, 『한국사학사학보』 제28집(2013.12), 246-248쪽을 참조할 것.

살펴보면서, 문자화된 신의 말씀을 증개하는 사제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다.⁶⁾ 그런데, 책 구디의 논의에서는 단지 구술/문자의 이분법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문자’가 책 구디가 생각한 것처럼 단지 말을 전사(轉寫, transcription)한 기호에만 국한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⁷⁾ 예를 들어, 중세 유럽의 사본에서 극도로 발전한 장식문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권력의 원천이자 도구로서의 문자와 책의 역할은 책 구디 외에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논의되어 왔지만,⁸⁾ 책이라는 매체의 물질적, 그래픽적 차원(책의 소재와 문자의 형태, 장식 등 책의 외형적 측면)에서 문자와 권력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 역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⁹⁾

중세 초부터 그리스도교인들은 책과 문자를 신성하게 여겼으며, 책의 표지와 글자를 장식함으로써 이러한 신성성을 외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카롤링 시대에는 채식수사본이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였고,¹⁰⁾ 특히 성서를 비롯하여 중세의 핵심적인 종교의식인 전례에서 사용되는 책들에 가장 화려한 장식이 부여되었다. 중세 시대에 전례는 권력의 중요한 ‘매개’¹¹⁾이자 권력의 도

6) Jack Goody, *Pouvoirs et savoirs de l'écrit*, p. 96: “L'intervention du prêtre n'est pas intrinsèquement liée à l'utilisation d'un texte rituel, mais si le service est écrit, et si l'écriture, sans être nécessairement le monopole de la prêtrise, est néanmoins restreinte dans sa pratique, et si le verbe divin exige une interprétation à cause de ses mystères, alors il est probable qu'un spécialiste devienne le médiateur de la parole divine écrite, du moins jusqu'à ce que la littérature ne se répande.”

7) 문자를 언어의 기호로만 보는 관점에 대한 비판은 1960년대 말에 자크 데리다에 의해서 제기되었으며, 오늘날 프랑스와 독일의 문자연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Jacques Derrida, *De la Grammatologie*(Paris: Éditions de Minuit, 1967); 자크 데리다 지음, 김성도 옮김, 『그라마톨로지』(민음사, 2010). 예를 들어, Anne-Marie Christin (dir.), *Histoire de l'écriture. De l'idéogramme au multimédia*(Paris: Flammarion, 2012[1ère éd. 2001])는 기존의 언어의 기호로서의 문자의 역사에서 벗어나 문자의 이미지적인 측면(도상적 측면)을 강조한 문자의 통사를 다시 쓰고자 시도하였다.

8) 예를 들어, 국내학자의 연구 중에는 홍용진, 1360-1407년 프랑스 왕실과 혈연귀족들의 텍스트 생산, 『서양중세사연구』 제32호(2013.09), 135-171쪽.

9) Cf. Donald McKenzie, *Bibliography and the Sociology of Texts*(London: British Library, 1986)는 텍스트의 외형이 텍스트의 의미를 구축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10) Jean Porcher, “Les manuscrits à peinture”, Jean Hubert, Jean Porcher et Wolfgang Fritz Volbach, *L'empire carolingien*(Paris: Gallimard, 1968), p. 71 sq.

11) Cf. 재독 한인 철학자이자 문화학자인 한병철은 폭력과 다른 권력의 특성이 “매개 관계”의 존재 여부에 있다고 보았다. Byung-Chul Han, *Was ist Macht ?*(Stuttgart,

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스도교의 경전은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소수의 성직자와 귀족들만이 향유할 수 있었던 반면에, 사제의 몸짓과 말(설교와 성가), 그리고 의식에서 사용되는 사물들(objets)과 같은 상징적인 요소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종류의 시각적, 청각적 ‘매체’들이 결합되어 거행된 전례에는 사회구성원의 다수를 이루는 문맹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 조직화된 상징체계에 효과적으로 의거하여 거행되는 종교의례인 전례는 중세 교회가 신도들에 대해 일상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방편 중 하나인 동시에, 사회구성원들의 통합과 결속력을 강화하는 사회적인 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¹²⁾ 또한, 카롤링 시대에는 전례의 통일 및 “로마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새로운 전례서들이 만들어졌는데, 전례서 편찬은 단순히 글을 읽을 수 있는 지배층이 사용하는 책을 만든다는 의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거행되는 전례에 통일된 형식을 부여하고 이를 고정시키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확산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더욱이 카롤링 시대의 전례개혁은 단순히 종교적 차원의 개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언어개혁과 문자개혁을 수반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인 의미를 지닌다. 새로운 전례서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라틴어의 오류를 고치는 언어개혁이 수반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텍스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문자개혁이 이루어졌다. 당대의 성서나 복음집과 마찬가지로 전례서에서도 새로운 글자체(카롤링 소문자)의 사용, 띄어쓰기의 확산, 장식문자¹³⁾의 발전, 레이아웃의 발전 등이 나타났다. 물론 중세 사본의 그래픽적 차

2005); 김남시 옮김, 『권력이란 무엇인가』(문학과지성사, 2011). 자아(Ego)의 의지를 타자(Alter)에게서 실현하고자 할 때, 타자를 억압하는 폭력은 비생산적인 결과를 낳지만, 타자로부터 자유로운 복종을 이끌어내는 권력은 자아와 타자 사이에 “매개 관계”를 놓음으로써 긍정적, 생산적 결과를 산출한다. 여기에서 “매개 관계”란 자아와 타자 사이에 공통된 “보편자”를 놓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저자가 이 “매개 관계”에 대해 자세한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아쉽게 느껴진다. 중세 유럽의 정치와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일련의 종교적 기호와 표상 체계, 그리고 전례와 같은 의례 역시 Ego(군주 및 성직자)와 Alter(백성) 사이의 지배/복종의 관계에 유효성을 제공한 일종의 권력의 “매개”로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독일어의 Medium/Medien은 항상 일괄적으로 “매체”라고 번역되지 않으며, 문맥에 따라 “매개”로 번역되기도 한다.

12) Éric Palazzo, *Liturgie et société au Moyen Âge*(Paris: Aubier, 2000), pp. 13-15.

13) 이 글에서 사용되는 ‘장식문자’라는 표현은 대형 장식문자(monumental captials), 장식 머리글자(decorated initials)와 이야기 머리글자(historiated initials)를 모두 포괄

원의 변화와 발전이 카롤링 시대에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다. 7-8세기 섬나라에서 켈트 양식과 앵글로색슨 양식의 융합을 바탕으로 한 코텍스 장식과 레이아웃의 발전이 먼저 나타났고,¹⁴⁾ 이 지방의 사본들은 8세기 이후 프랑크 왕국에서 제작된 코텍스에 큰 영향을 주었다.¹⁵⁾ 특히, 엘킨을 비롯한 많은 섬나라 출신 학자들이 카롤루스 대제(Karolus Magnus, 재위 750-814년)의 궁정에서 활동을 하면서, 카롤링 수사본에서 섬나라 사본의 영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드로고 전례서』는 19세기 이래 많은 고문서학자, 미술사가, 전례학자, 역사학자들의 주목을 받아 온 유명한 사료이다. 주요 연구 동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19세기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는 1886년에 출간된 프랑스 국립도서관 관장 레오폴드 드릴(Léopold Delisle)의 중세 전례서 사본 조사가 있다. 그는 프랑스와 유럽 각지의 도서관에 산재해 있던 7세기부터 12세기까지의 전례서 사본 127개(소실된 사본 2개 포함)를 조사하면서, 각 사본들의 제작 연대 및 장소 등을 밝히고, 서체의 특징과 채색화의 예술적 특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였다.¹⁶⁾ 이후 1924년에 빅토르 르로케(Victor

하여 지칭한다. 프랑스어권의 중세 고서체학자들은 “l'écriture d'apparat”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특히 화려하게 장식된 대형 머리글자들을 말한다. 이야기 머리글자에 대해서는 각주 23번을 참조할 것.

- 14) George Henderson, *From Durrow to Kells. The Insular Gospel-books 650-800* (London: Thames and Hudson, 1987). 브리타니아 섬에서 만들어진 사본 장식에 켈트 문화의 특징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조지 헨더슨은 이스트 앵글리아(East Anglia) 지방을 지배했던 이교도 왕의 묘지인 서튼 후(Sutton Hoo)의 선박 무덤에서 발굴된 장신구들에 새겨진 패턴과 유사한 패턴을 7세기 중엽에 제작된 『더로우서』(*Book of Durrow*) 사본 장식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로우서』의 장식은 켈트 양식과 색슨 양식이 융합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Ibid.*, p. 32 sq. Otto Pächt, *Book Illumination in the Middle Ages: an Introduction*, engl. trans. (London: H. Miller, 1986[1st ed. in German 1984]), pp. 64-66도 참조할 것.
- 15) 예를 들어, 『린디스판 복음서』(*Lindisfarne Gospels*)의 마태오 복음서 도입부(London, British Library Cotton MS Nero D.IV, fol. 27)와 700년경에 프랑크 왕국에서 제작된 『에흐터나흐 복음서』(*L'Évangiles d'Echternach*, Paris, BnF, lat. 9389, fol. 177) 및 『샤를 대머리왕의 두 번째 성서』(*La Seconde Bible de Charles le Chauve*, Paris, BnF, lat. 2, fol. 11)를 비교해 볼 것. 카롤링 수사본에서 나타나는 섬나라 사본 장식문자의 영향에 대해서는 Otto Pächt, *Book Illumination*, pp. 69-70.
- 16) Léopold Delisle, *Mémoires sur l'ancien sacramentaires*(Paris: Imprimerie nationale,

Leroquais) 대수도원장은 레오폴드 드릴의 사료조사를 확장하여 프랑스 각 도서관에 소장된 중세의 전례서뿐만 아니라 근대의 미사경본(Missal)까지 함께 조사하였다. 그는 12세기 말까지 필사된 사본으로는 192개의 전례서와 미사경본을 찾아냈다.¹⁷⁾ 20세기 초중엽의 업적 중에는 메스 대성당 소장 사본들에 관한 연구가 눈에 띄는데, 특히 1937년에 장 바티스트 펠트(Jean-Baptiste Pelt) 주교는 『드로고 전례서』의 텍스트를 모두 전사하였다.¹⁸⁾ 이러한 실증주의적 사료 연구와 더불어, 1960년대까지 주로 고서체학(paléographie), 필사본학(codicology), 미술사 분야에서 『드로고 전례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서구학계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드로고 전례서』에 대한 사료 연구는, 1974년에 빌헬름 쾰러(Wilhelm Köhler)가 해제를 쓴 컬러 복제판(facsimile edition)이 출판되면서 완성됨과 동시에 사료에 대한 접근성도 좋아지게 되었다.¹⁹⁾ 곧 이어 1977년에 프란츠 운터키르허(Franz Unterkircher)는 『드로고 전례서의 도상과 전례』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이 사본의 텍스트 및 이미지 구성에 대해서 정리하였다.²⁰⁾ 이와 같은 탄탄한 사료 연구의 전통을 바탕으로,

1886). 그는 이 논문의 부록에 달력과 호칭기도(litanies)만 남아 있는 전례서 사본들의 목록도 제시하였다. 『드로고 전례서』에 대해서는 *Ibid.*, pp. 100-102. 레오폴드 드릴을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드로고 전례서”라는 명칭보다는 “메스 교회의 전례서”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하였다.

17) Victor Martial Leroquais, *Les sacramentaires et les missels manuscrits des bibliothèques publiques de France*, vol. 1(Paris: [s.n.], 1924). 『드로고 전례서』에 대해서는 *Ibid.*, pp. 16-18.

18) Louis Weber, *Einbanddecken, Elfenbeintafeln, Miniaturen, Schriftproben aus Metzser liturgischen Handschriften*, I. *Jetzige Pariser Handschriften*(Metz: N. Houpert, 1913), pp. 1-22, Taf. I-XXVIII; Jean-Baptiste Pelt, *Études sur la cathédrale de Metz. La liturgie. I. Ve-XIII^e siècle*(Metz: Impr. du journal Le Lorrain, 1937), en part. pp. 51-112.

19) *Drogo-Sakramentar. Manuscript latin 9428, Bibliothèque nationale, Paris, vollständige Faksimile-Ausgabe im Originalformat*, Kommentar Wilhelm Köhler (Graz: Akademische Druck- u. Verlagsanstalt, 1974). 1960년대까지의 연구 경향에 대해서는 *Ibid.*, pp. 29-31의 참고문헌 목록을 참조할 것. 이 복제판에 실린 빌헬름 쾰러의 사료 해제는 1960년에 출판되었던 그의 저술을 재수록한 것이다. Wilhelm Köhler, *Die karolingischen Miniaturen*, 3. *Die Gruppe des Wiener Krönungs- Evangeliars. Metzser Handschriften*(Berlin: B. Cassirer, 1960), vol. 2, pp. 143-162 *et passim.*, Planches III.76-III.91. 이 글에서는 1974년판의 해제를 참조하였다.

20) Franz Unterkircher, *Zur Ikonographie und Liturgie des Drogo-Sakramentars*

1980년대 이후에는 문화사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학자들은 『드로고 전례서』를 카롤링 시대의 전례예식, 전례론(典禮論) 및 문화적 상징과 관련된 연구 수행하기도 했고,²¹⁾ 9세기의 메스 대성당의 모습이나 당시의 전례 거행 방식을 알려주는 시각적인 사료로서 활용하기도 하였다.²²⁾

1990년대 후반 이후 최근에는 연구의 초점이 중세의 전례와 도상에서 중세 수사본의 장식문자와 문자의 도상성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998년에 출간된 『드로고 전례서』를 비롯한 8-9세기 사본들의 이야기 머리글자(historiated initials)²³⁾에 대한 크리스티네 자코비-미르발트(Christine Jakobi-Mirwald)의 연구가 그러하다.²⁴⁾ 오늘날 독일 학계에서는 이미지로서의 문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면서, 중세 사본의

(Graz: Akademische Druck- u. Verlagsanstalt, 1977).

- 21) 1986년에 코넬 대학 교수 로버트 캘킨스(Robert G. Calkins)는 카롤링 시대의 로마 전례 도입이 사본 장식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캘킨스는 『드로고 전례서』의 미사전문 부분에서 장식이 강조된 이유가, 미사전문을 강조하는 로마 전례의 영향과 더불어 메스의 전례학자 아말라리우스(Amalarius Metensis, c. 775/780-850)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았다. Robert G. Calkins, "Liturgical Sequence and Decorative Crescendo in the Drogo Sacramentary", *Gesta*, Vol. 25, No. 1(1986), pp. 17-23. 반면에, 에릭 팔라초는 『드로고 전례서』 사본의 도상과 장식이 전례주년을 구획하고 책의 구조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사본의 건축물 장식들이 반드시 아말라리우스가 제시한 제단이나 그리스도의 무덤의 상징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캘킨스의 견해를 비판하였다. Éric Palazzo, "L'enluminure à Metz au Haut Moyen Âge(VIIIe-IXe siècles)", *Metz enluminée. Autour de la Bible de Charles le Chauve: trésors manuscrits des églises messines*. Catalogue d'exposition (Metz: Éditions Serpenoise, 1989), pp. 24, 27.
- 22) François Heber-Suffrin, "La Cathédrale de Metz vue par Paul Diaire et les témoignages archéologiques", *Autour d'Hildegarde*, Actes du colloque (Nanterre: CRATHMA, 1987), pp. 73-83; Jean-Claude Schmitt, *La raison des gestes dans l'Occident médiéval*(Paris: Gallimard, 1990), pp. 331-332.
- 23) 중세 시대에 history 혹은 histoire(istoire)는 '이야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오늘날 미술사가들에 의해 사용되는 historiated initial이라는 용어를 '이야기 머리글자'로 번역하고자 한다. 이야기 머리글자는 문자 도안 안에 서사적인 내용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장식문자를 말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그림 머리글자(figurated initials)"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24) Christine Jakobi-Mirwald, *Text-Buchstabe-Bild. Studien zur historisierten Initialie im 8. und 9. Jahrhundert*(Berlin: D. Reimer, 1998). 『드로고 전례서』에 대해서는 *Ibid.*, pp. 53-58.

장식문자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관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드로고 전례서』는 단편적으로나마 대표적인 사례로서 종종 언급되곤 한다.²⁵⁾ 한편, 최근 프랑스에서는 장식문자 유형의 역사적인 변화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가 출판되었다. 2007년에 파트리샤 스티른느만(Patricia Stirnemann)과 마르크 스미스(Marc H. Smith)는 중세 초부터 르네상스시기까지 수사본의 대형 장식문자들(des écritures d'apparat)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드로고 전례서』에 대해서 텍스트에 삽입된 장식문자와 장식 덕분에 페이지 구성(레이아웃)에 있어서 혁신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²⁶⁾ 그렇지만 이들의 연구에서도 『드로고 전례서』는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졌다.

이 글에서는 문화사적인 접근법과 문자연구의 방법론을 결합시켜, 『드로고 전례서』를 “카롤링 르네상스” 시기의 전례개혁과 문자개혁의 산물로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주목을 많이 받아 온 언어와 철자법의 개혁이나 교육개혁의 측면보다는, 특히 문자의 그래픽적인 차원에서 나타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한다. 그런데, 카롤링 시대의 문자개혁이라고 하면 보통 카롤링 소문자만을 떠올리지만, 이 글에서는 중세의 코텍스에서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문자 형태 중 하나인, 문자와 이미지가 결합된 이야기 머리글자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요컨대, 이 글에서는 카롤링 시대의 종교정책과 문자정책의 결과 나타나게 된 문자의 그래픽적인 차원의 변화와 혁신 및 그 정치적, 문화적인 함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우선 카롤링 시대 문자개혁의 바탕을 이루는 종교문화적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것은 피피누스 3세(Pippinus III, 재위 741-768년)와 카롤루스 대제의 전례개혁을 말한다.

II. 카롤링 시대의 전례개혁과 전례서

이 글에서 우리가 ‘전례서’라고 약칭하는 사크라멘타리움(*sacramentarium*

25) 예를 들어, Beate Braun-Niehr, “Nicht nur zur Zierde: Initialen im mittelalterlichen Handschriften”, Michael Roth (hg.), *Schrift als Bild*, Ausstellungskatalog (Berlin und Petersberg: Michael Imhof Verlag, 2010), pp. 14-15.

26) Patricia Stirnemann et Marc H. Smith, “Forme et fonction des écritures d'apparat dans les manuscrits latins(VIII^e-XV^e siècles)”, *Bibliothèque de l'École des chartes*, t. 165(2007), pp. 75-78.

혹은 *liber sacramentorum*)은 대미사(*Missa Sollemnis*, High Mass)의 성체성사 거행 의식에서 핵심을 이루는 전례용 책으로서, 미사의 집전자인 주교나 사제가 매일 미사를 거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설교문과 기도문을 담고 있다.²⁷⁾ 전례서 중에서 성찬기도 부분인 미사전문(Canon of the Mass)은 4세기에 성 암브로시우스에 의해 발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중세 초까지 로마 전례서가 서서히 형성되었다. 초대교회에서는 리벨루스(*libellus*)라 불리는 소책자 형태의 전례문 텍스트 모음집을 사용하였다. 이후 6세기 후반에 대교황 그레고리우스(재위 590-604년)가 이전부터 로마에서 사용되어 오던 다양한 리벨루스들을 모아 재구성함으로써 “그레고리우스 전례서”라 불리는 로마 전례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²⁸⁾ 그렇지만, 중세 초의 미사 전례는 오늘날과 같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고, 어떤 특정한 전례서를 사용해야 할 의무나 규정도 없었다. 지역에 따라 다양한 전례 의식이 행해졌으며, 각기 다른 리벨루스나 전례서를 사용하였다. 갈리아 지방에서는 카롤링 시대 이전까지 “갈리아 미사 전례(liturgie gallicane, 이하 갈리아 전례로 약칭)”²⁹⁾라 불리는 예식으로 미사를 드렸는데, 이 역시 통일되지 않고 지역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서유럽의 전례서는 카롤링 시대에 결정적인 변화를 겪었다. 이는 당시 군주들에 의해 추진된 전례개혁, 다시 말해서 미사 전례의 일원화, 규범화, 로마화 정책과 맞물려 있었다. 카롤링 왕조를 세운 피피누스 3세와 그의 아들 카롤루스 대제는 종교정책과 문화정책을 통하여 프랑크 왕국을 통합하고 중

27)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크라멘타리움은 7세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10세기 말-11세기 초부터는 평미사(Low Mass, 교우 없이 복사만 참석하여 응답을 하는 미사)가 일반화되면서 사크라멘타리움이 점차 미사경본으로 대체되어 갔다. 미사경본은 사크라멘타리움, 미사전례성서(lectionary), 따름노래집(antiphony) 등 미사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책들을 편의상 하나로 묶은 것을 말한다. 사크라멘타리움은 13세기부터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사라졌지만, 오늘날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정에 의해 사크라멘타리움이 다시 복원되어 사용되고 있다. 사크라멘타리움과 미사경본의 차이점 및 사크라멘타리움에서 미사경본으로의 이행과정에 대해서는 Victor Leroquais, *Les sacramentaires et les missels*, pp. xi-xiii을 참조할 것.

28) Éric Palazzo, *A History of Liturgical Books from the Beginning to the Thirteenth Century*, Engl. trans. by Madeleine Beaumont(Collegeville[Minnesota]: Liturgical Press, 1998[1st ed. in French 1993]), pp. 35-38.

29) “갈리아 전례”는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데, 보통 오늘날의 프랑스, 영국, 에스파냐 등 북부 지역에서 거행되던 다양한 전례들을 통칭한다.

교와 신의 권위에 기대어 군주의 권위를 고양시키는 신정정치를 추구하였다. 피피누스에 의해 시작된 교회개혁은 그러한 정치적인 기획의 일부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741년에 프랑크인들의 왕(*rex Francorum*)으로 즉위한 피피누스는 정통성을 결여한 찬탈자라는 자신의 취약점을 만회하고자 교회와 협력하여 왕권을 강화시키는 정책에 착수하였다. 그는 주교에 의해 왕이 도유를 받는 대관식을 도입하였으며,³⁰⁾ 성직자들의 도덕적 쇄신과 교회의 위계질서 정립을 위한 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피피누스의 측근인 메스의 주교 크로데강(Chrodegang, 715년경-766년)이 그와 함께 프랑크 교회의 개혁에 앞장섰다.³¹⁾

30) Pierre Riché, *Les Carolingiens. Une famille qui fit l'Europe*(Paris: Hachette, 1983), p. 85. 피피누스는 741년에 거행된 첫 번째 대관식 이후, 745년에 두 번째 대관식을 치렀는데, 이때에는 당시 프랑크 왕국을 방문한 교황 스테파누스 2세가 의식을 집전하였다. 시릴 보젤은 교황의 프랑크 왕국 방문을 기점으로 피피누스의 전례개혁이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Cyrille Vogel, *La réforme culturelle sous Pépin le Bref et sous Charlemagne(deuxième moitié du VIII^e siècle et premier quart du IX^e siècle)*, en annexe à la réédition de Erna Patzelt, *Die karolingische Renaissance* (Graz: Akademische Druck. u. Verlagsanstalt, 1965), p. 182.

31) 크로데강은 아우스트라시아 출신의 귀족으로서 카롤루스 마르텔의 궁정에서 “양육되며(enutritus)” 교육을 받았다. 그는 741년에 궁정의 상서(referendarius)로 임명되었고, 그 다음 해인 742년에는 메스의 주교가 되었다. 그는 754년에서 756년 사이에 참사원들(chanoines)의 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이 규칙은 처음에는 메스 주교구에만 적용되다가 이후 프랑크 왕국의 모든 교회에 일괄적으로 부과되었다. Chrodegangus Metensis Episcopus, *Regula Canonorum*, PL 89, col. 1057-1096. 8세기 베네딕투스회의의 수도사이자 역사가인 파울루스 바르네프리트, 일명 파울루스 디아코누스(Paulus Diaconus)는 역대 메스 주교들에 대한 기록에서 크로데강의 품성과 외모, 언어적인 재능, 약자에 대한 자비심 등을 칭찬하였다. 파울루스에 따르면 크로데강은 프랑크어와 라틴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던 지적인 인물이었다. Paulus Warnefridi, *Liber de episcopis mettensibus*, ed. G. H. Pertz, MGH SS 2(Hannover, 1829) pp. 267-268: “*Hic in palatio maioris Karoli ab ipso enutritus, eiusdemque referendarius extitit; ac demum Pippini regis temporibus pontificale decus promeruit. Fuit autem omnino clarissimus omnique nobilitate coruscus, forma decorus, eloquio facundissimus, tam patrio quamque etiam latino sermone imbutus, servorum Dei nutritor, orfanorum viduarumque non solum altor sed et clementissimus tutor.* 피에르 리세는 크로데강을 피피누스 시대부터 이미 시작된 “카롤링 르네상스”의 주역 중 하나로 평가하였다. Pierre Riché, “Le renouveau culturel à la cour de Pépin III”, *Francia*, t. 2(1974), pp. 69-70.

전례개혁 역시 프랑크 교회를 재조직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755년에 크로데강은 국왕의 명에 따라 로마식 미사 전례를 메스에 도입하였는데, 이 때 규범으로 삼았던 로마 전례서는 그레고리우스 전례서가 아닌 겔라시우스 전례서였다. 중세 초의 로마 전례서에는 그레고리우스 전례서 외에 겔라시우스 전례서가 있었다. 후자는 5세기에 교황 겔라시우스 1세가 지었다고 알려진 전례서(*Liber sacramentorum Romanae ecclesiae*)로서 7세기에 서서히 갈리아 지방에 소개되었다. 이후 피피누스의 전례개혁을 거치면서 8세기 중엽에 겔라시우스 전례를 바탕으로 갈리아 전례를 혼합한 프랑크화된 로마 전례서가 만들어졌다. 학자들은 이 전례서를 “피피누스 왕의 로마 전례서”라고 부르기도 한다.³²⁾ 이 계열의 전례서 중 대표적인 사본으로는 790년경에 모(Meaux) 혹은 캄브레(Cambrai)의 스크립토orium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젤론 전례서』(*Sacramentaire de Gellone*)가 있다(Paris, BnF, lat. 12048).

요컨대, 피피누스에 의해 교회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된 전례개혁의 핵심은 기존의 갈리아 전례 대신 로마 전례를 프랑크 왕국에 도입함으로써 종교의례의 로마화를 이루는데 있었다. 시릴 보젤(Cyrille Vogel)은 피피누스가 전례개혁을 추진한 이유 중 하나는 교황청과의 정치적, 종교적인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충분치 않으며, 결정적인 동기를 프랑크인들의 동방정책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황이 전례의 통일이라는 문제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반면에, 피피누스는 6세기 이래 갈리아 전례에 크게 영향을 미친 동방의 전례 대신 로마식 전례를 도입함으로써 비잔티움 제국의 종교적, 문화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를 품고 있었다는 것이다.³³⁾ 이러한 견해는 프랑크 왕국과 비잔티움 제국과의 관계가 단순히 배제와 단절을 추구하였다기보다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지만,³⁴⁾ 피피누스가 추진한 전례개혁의 근본적인 목적이 로마화된 종교의례에 기반 한 왕국의 통합에 있었다는 주장에는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해오고 있다.³⁵⁾

32) Éric Palazzo, *A History of Liturgical Books*, p. 46.

33) Cyrille Vogel, “La réforme liturgique sous Charlemagne”, Wolfgang Braunfels (hg.), *Karl der Große. Lebenswerk und Nachleben*, vol. 2(Dusseldorf: L. Schwann, 1965), pp. 219–220.

34) Pierre Riché, “Le renouveau culturel à la cour de Pépin III”, pp. 67–68.

35) 반면에, 최근 이자크 헨은 현존하는 사료를 재검토하면서, 피피누스의 전례개혁이 실

카롤루스 대제는 부친의 전례개혁 정책을 이어받아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는 교황 하드리아누스 1세(재위 772-795년)에게 대교황 그레고리우스가 만든 “온전한(*immixtum*)” 전례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프랑크 왕국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겔라시우스 전례서에는 복잡하고 이질적인 수많은 가필들이 덧붙여져 있었기에, 오히려 전례의 통일 및 개혁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대교황 그레고리우스가 만든 전례서를 아헨에서 “표준적인” 전례서로 사용하는 동시에 이를 왕국 전체에 배포하기를 원했다. 카롤루스가 교황 하드리아누스 1세에게 보낸 편지는 소실되었지만, 784년에서 791년 사이에 교황이 그에게 보낸 답장은 오늘날까지 남아 당시의 정황을 전해주고 있다. 교황은 편지에서 카롤루스가 파견한 문법학자 파울루스, 즉 파울루스 디아코누스(*Paulus Diaconus*)의 요청에 따라 라벤나의 대수도원장 요하네스를 통해서 왕에게 보낸 전례서가 바로 대교황 그레고리우스의 전례서라고 말하였다.³⁶⁾ 이 구절

제로 프랑크 왕국 전체의 전례를 통일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카롤루스 대제의 경우에도, 전례서에서 정확성(*correctio*), 단일성(*unanimitas*), 로마 전례의 도입(*secundum Romanum usum*)을 추구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전례의 로마화 정책은 로마식 성가의 도입에 그쳤고 프랑크 왕국 전체의 전례를 로마화하려고 추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전례의 통일과 로마화란 로마를 통일과 권위의 이상으로 삼았던 카롤링 제국의 지배계층이 주장했던 정치적 이데올로기이자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했다고 주장하였다. Yitzhak Hen, “The Romanization of the Frankish liturgy: ideal, reality and rethoric of reform”, Claudia Bolgia, Rosamond McKitterick and John Osborne (ed.), *Rome Across Time and Space: Cultural Transmission and the Exchange of Ideas, c. 500- 1400*(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p. 111-123. 그렇지만, 시릴 보젤이 지적했듯이, 중세 라틴어에서 ‘cantare’는 ‘노래하다’라는 근대적인 의미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찬양하다(*laudare*)’, ‘설교하다(*praedicare*)’라는 고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듯하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성가의 로마화에만 국한된 개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Cyrille Vogel, *La réforme culturelle sous Pépin le Bref et sous Charlemagne*, pp. 180-181. 또한, 카롤링 시대에 로마가 군주들과 엘리트 계층의 정치적, 문화적인 이상향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카롤링 시대의 ‘로마화’ 정책이란 단순히 교황과의 정치적인 연대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서유럽의 역사에서 로마 문명(*romanité*)에 대한 동경, 다시 말해서 서구 문명의 모델로서 로마를 설정하는 것은 중세 후기와 르네상스 시대, 더 나아가 근현대까지 계속 나타난 복합적인 정치적, 문화적 현상이었다.

36) *Codex Carolinus*, ed. Wilhelm Gundlach, MGH Ep. 3(Berlin, 1892), p. 626: “*De sacramentorio vero a sancto disposito predecessori nostro, deifluo Gregorio*

은 카롤루스가 교황이 보낸 전례서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불평을 했었다는 정황을 드러낸다.

프랑스의 전례사학자 에릭 팔라초(Éric Palazzo)는 그레고리우스 대교황의 전례서를 보내달라는 카롤루스의 요구에 하드리아누스 1세가 당혹스러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에서는 “그레고리우스 전례서”나 규범화된 전례서라는 개념이 낯선 것이었기 때문이다. 교황은 라벤나의 도서관에 있던 사본 중 대교황 그레고리우스의 전례서라고 생각되는 것 혹은 카롤루스의 요구에 적합해 보이는 사본을 하나 골라 프랑크 왕국으로 보내도록 하였다. 그런데, 아헨 궁정의 전례학자들은 이 전례서가 몇몇 특정 축일에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축일용 전례서로서, 각 교구에서 필요한 매일 미사에는 부적합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시 말해서 제국 통합 정책에 사용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었다.³⁷⁾ 더욱이 텍스트의 라틴어에도 문제가 있어서 대교황 그레고리우스의 저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카롤루스는 교황에게 자신이 받은 “그레고리우스 전례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고, 교황은 답장에서 자신이 보낸 것이 진본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학자들은 카롤루스가 하드리아누스 1세로부터 받은 전례서는 실제로는 교황 호노리우스 1세(625-638) 시대에 편집된 것으로서, 8세기 후반에 교황청에서 사용되던 전례서 모음집이었다고 보고 있다.³⁸⁾ 결국 프랑크 왕국에서는 하드리아누스 1세가 보낸 전례서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카롤링 시대 미사 전례서의 대부분은 “하드리아눔(*Hadrianum*)”이라 불리는 카롤루스의 치세에 확립된 그레고리우스 전례서 확장본, 다시 말해서 “하드리아눔 유형의 그레고리우스 전례서(*The Gregorian of the Hadrianum Type*)”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 전례서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미사경본으로 발전하는 바탕이 되었다.³⁹⁾

그런데, 카롤루스에 의해 새로운 규범으로 제시된 그레고리우스 전례서 확

papa: immixtum vobis emitteremus, iam pridem Paulus grammaticus a nobis cum pro vobis petente secundum sanctae nostrae ecclesiae traditionem, per Iohannem monachum atque abbatem civitatis Ravennantium vestrae regali emisimus excellentiae.”

37) Éric Palazzo, *A History of Liturgical Books*, p. 52.

38) *Ibid.*, p. 35의 전례서 계보도를 참조할 것.

39) *Ibid.*, pp. 51-56.

장본(하드리아눔)이 프랑크 제국에서 유일한 모델로서 다른 전례 양식들을 모두 구축시켜버린 것은 아니었다. 카롤루스 대제에 의한 전례의 로마화, 일원화, 표준화, 규범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카롤링 제국에서는 항상 개별적, 지역적 특수성이 잔존해 있었다. 시릴 보젤도 피피누스와 카롤루스의 전례개혁 정책은 로마 전례와 갈리아 전례가 혼합된 “혼종적 형태를 지닌 전례(liturgie hybride)”의 출현을 낳았다고 지적하였다.⁴⁰⁾ 9세기 중엽의 대표적인 전례서 중 하나인 『드로고 전례서』는 피피누스 시대부터 시작되어 카롤루스 대제 시대에 결실을 본 전례개혁이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나온 책이었다. 또한 이 사본은 그레고리우스 전례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갈리아 전례서의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는 점⁴¹⁾에서 카롤링 시대 전례서의 특징을 대변하고 있다.

III. 『드로고 전례서』와 카롤링 시대의 문자개혁

1. 고대 로마 미술의 영향

『드로고 전례서』에는 카롤링 시대 전례개혁의 결과(로마식 전례의 도입)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자의 혁신이라는 차원에서도 당대의 문화적인 로마화 정책이 드러난다. 우선 『드로고 전례서』의 주문자(후원자), 제작 배경, 사본의 주요 특징 등 사료의 외적인 기본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이 사본의 말미에는 메스의 역대 주교 명부가 두 번 나온다(fol. 126-127, 127v-128). 그 중 기일이 적혀있는 두 번째 명부에서, 다른 주교들의 이름은 머리글자 외에는 카롤링 소문자체로 기입되어 있는 반면에, 드로고의 이름은 금색 잉크로 쓴 언셜체로 강조되어 있다. “*Drogo archiepiscopus VI idus decembris*(대주교 드로고 12월 이두스[보름]의 6일 전)”(fol. 128). 이 문구 덕분에 우리는 사본의 제작을 주문한 이가 (855년) 12월 8일에 임종한 메스의 대주교 드로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⁴²⁾ 주문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

40) Cyrille Vogel, “La réforme liturgique sous Charlemagne”, pp. 229-232.

41) 이 글의 제3장 3절을 참조할 것.

42) 드로고 대주교의 사망 일자에는 다른 사료에서도 확인된다. Cf. *Le souvenir des carolingiens à Metz au Moyen Âge. Le Petit Cartulaire de Saint-Arnoul*, coordination scientifique Michèle Gaillard(Publications de la Sorbonne, 2006), pp. 8-9: “XL. Dominus Drogo archiepiscopus et sacri palatii summus capellanus, filius Karoli imperatoris, sedit annis XXXII, mensibus quinque et dies VII.

던 『드로고 전례서』는 메스 대성당의 보물 수장고에 계속 보관되어 오다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이후 1802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 이관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⁴³⁾

현재 프랑스 로렌 지방에 속해 있는 메스는 중세 프랑크 왕국의 주요 거점 도시였다. 메스는 메로빙 시대에 아우스트라시아(Austrasia)의 수도이자 주교좌성당이 위치한 도시가 되었고,⁴⁴⁾ 특히 카롤링 시대에 대단히 높은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카롤루스 대제의 오대조(五代祖)인 성 아르눌푸스(Saint Arnoul, 582-640/641)가 메스 출신으로 이 도시의 주교직에 있었기 때문이다. 카롤링 제국 시대에 메스는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인 동시에 종교와 예술의 중심지였으며, 주교나 대주교직에는 주로 왕실의 인척이나 국왕의 측근들이 임명되었다. 카롤루스 대제의 다섯째 아들(서자)이자 루도비쿠스 경건황제(Ludovicus Pius, 재위 813-833, 834-840년)의 이복형제였던 드로고는 823년에 성직서임을 받고 826년에 메스의 주교가 되었으며, 이후 835년에는 대주교가 되었다.⁴⁵⁾

드로고는 엘퀸, 아인하르트(에긴하르트), 테오돌푸스, 안길베르트, 에보, 힝크마르, 안길람 등과 더불어 “카롤링 르네상스”의 문예부흥을 이끈 인물 중 하나로 평가된다. 그는 아일랜드의 문법학자인 무레타크(Murethach)를 비롯해서 여러 화공들과 상아 세공품 장인 등을 후원하였다.⁴⁶⁾ 메스의 필경사와 채식사, 세공사들은 그의 후원 하에 『드로고 전례서』(Paris, BnF, lat. 9428)를 비롯해서 일명 『드로고 복음서』(Évangiles de Drogon, Paris, BnF, lat. 9388), 그리고 『메스 복음서』(Évangiles de Metz, Paris, BnF, lat. 9383) 같은 “카

Obitque VIo idus decembris in Burgundia, predio sancti Petri Numeriaco dicto. Indique corpus eius delatum ad urbem Mediomatricum et humatum est in ecclesia beati Iohannis apostoli idus decembris.”

43) Léopold Delisle, *Le cabinet des manuscrits de la Bibliothèque nationale*, tome II(Paris: Imprimerie nationale, 1874), p. 14 et tome III(Paris: Imprimerie nationale, 1881), p. 263.

44) 575년 프랑크 왕 지게베르트 1세(Sigebert I)가 메스를 아우스트라시아의 수도로 정했다.

45) Sophie Glansdorff, “L’évêque de Metz et archichapelain Drogon(801/802-855)”, *Revue belge de philologie et d’histoire*, Tome 81, fasc. 4(2003), pp. 950-951, 956-958.

46) Pierre Riché, *Dictionnaire des Francs: les Mérovingiens et les Carolingiens*, avec la collaboration de Patrick Périn(Bartillat, 2013[1996]), p. 212.

롤링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보물”들을 만들어냈다.

1881년에 레오폴드 드릴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수사본 장서 목록을 작성하면서 9428번 라틴어 사본, 즉 『드로고 전례서』가 만들어진 시기를 드로고 주교의 재임기간 중인 826년에서 855년 사이로 폭넓은 추정 연대를 제시하였다.⁴⁷⁾ 그렇지만 20세기 중엽에 빌헬름 쾰러는 사본 제작 시기를 더욱 좁혀서 844년에서 855년 사이로 추정하였고,⁴⁸⁾ 많은 학자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 쾰러가 844년이라는 연대를 제시한 이유는, 팔리움(pallium, 대주교의 견대)을 착용한 주교의 모습이 표지의 상아 부조와 사본의 이야기 머리글자에 묘사되어 있는데, 드로고가 교황으로부터 팔리움을 수여받은 시기가 바로 이 해였기 때문이다. 844년 1월 교황 그레고리우스 4세가 사망하고 세르기우스 2세(재위 844-847년)가 신임교황으로 즉위하자 프랑크 황제 로타리우스 1세(Lotharius I, 재위 840-855년)는 교황으로부터 충성선서를 받기 위해 자신의 아들인 루도비쿠스 2세와 드로고 대주교를 로마로 파견하였다.⁴⁹⁾ 세르기우스 2세는 이들을 공손하게 영접하였고, 상호간에 교섭이 마무리되자 도유식을 주관하여 루도비쿠스 2세를 롱고바르디인들의 왕(이탈리아의 왕)으로 축성하였으며, 드로고를 알프스 이북 지역의 교황대리인으로 임명하였다.⁵⁰⁾

47) Léopold Delisle, *Le cabinet des manuscrits*, III, p. 262.

48) Wilhelm Köhler, in *Drogo-Sakramentar*, p. 13; Franz Unterkircher, *Zur Ikonographie und Liturgie*, p. 9. 프란츠 운터키르허는 845년부터 855년 사이의 시기 중 후반부인 855년경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49) 824년에 로타리우스 1세는 루도비쿠스 경건황제와 함께 『로마교서』(*Constitutio Romana*)를 공포하여, (로마인들이 선출한) 교황이 황제의 칙사와 로마시민들 앞에서 충성선서를 한 후에야 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Capitularia regum Francorum*, t. 1, ed. Alfred Boretius, MGH Leges, Capit. (Hannover, 1883), no. 161, p. 824: “... et quod non consentiam ut aliter in hac sede Romana fiat electio pontificis nisi canonice et iuste, secundum vires et intellectum meum; et ille qui electus fuerit me consentiente consecratus pontifex non fiat, priusquam tale sacramentum faciat in praesentia missi domini imperatoris et populi, cum iuramento ...” 그런데, 세르기우스 2세가 절차를 무시하고 황제의 승인을 받기 전에 교황으로 즉위했기 때문에, 로타리우스 1세는 20년 전에 『로마교서』에서 규정한대로 교황의 충성선서를 받고자 했던 것이다. Sophie Glansdorff, “L’évêque de Metz et archichapelain Drogon”, p. 970.

50) *Annales Bertiniani*, ed. Georg Waitz, MGH SS rer. Germ. 5 (Hannover, 1883), p. 30; *The Annals of St-Bertin. Ninth-Century Histories*, Vol. 1, translated and annotated by Janet L. Nelson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이때 교황이 직위와 권력의 상징물로서 루도비쿠스에게는 검을, 그리고 드로고에게는 팔리움을 수여하였던 것이다. 학자들은 드로고 대주교가 이 전례서를 만들게 한 목적이 교황 대리인이 된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드높이기 위한 데에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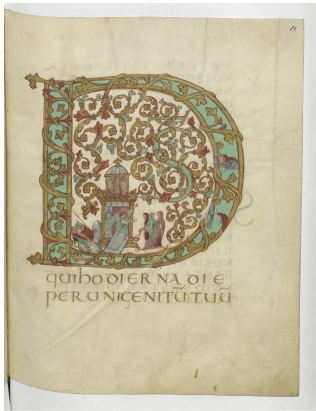
『드로고 전례서』의 제작시기를 드로고의 로마 방문 이후로 보는 또 다른 근거는, 이 사본의 도상과 장식에서 고대 로마 미술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844년에 루도비쿠스 2세가 로마를 방문했을 때 대규모 사절단이 함께 수행하였는데, 학자들은 이 사절단에 메스의 화공과 장인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이 로마 시내 곳곳에 산재해있던 그림과 모자이크를 보고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학자들은 『드로고 전례서』 장식문자의 덩굴장식을 담당한 화공이 350년경에 세워진 로마의 산타 콘스탄차(Santa Constanza) 묘당 천장 모자이크의 포도 넝쿨 문양을 보고 이로부터 영감을 얻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도판 1과 도판 2].⁵²⁾ 로마 미술

Press, 1991), p. 57. 로타리우스 1세의 장자인 루도비쿠스 2세는 839년에 이탈리아의 왕으로 임명되었고, 844년에 교황 앞에서 공식적으로 대관식을 올렸다. 드로고의 교황 대리인 임명에는 로타리우스 1세의 정치적인 의도가 배후에서 작용하였다. 로타리우스 1세는 이를 통해 자신의 형제들(동프랑크의 루트비히 왕과 서프랑크의 샤를 대머리왕)이 지배하는 영도에서 교회의 관할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하였다. 한편, 교황은 카롤루스 대제의 아들인 드로고를 교황대리인으로 임명함으로써, 루도비쿠스 경건황제의 아들들에 의해 셋으로 분할된 프랑크 제국에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다. 교황대리인으로서의 드로고의 직함은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명예직에 머물렀고, 드로고 본인도 제국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직함을 내세운 정치적 행동은 취하지 않았다. Sophie Glansdorff, “L'évêque de Metz et archichapelain Drogon”, pp. 929, 972-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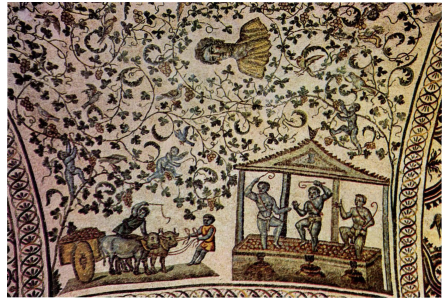
51) John Beckwith, *L'art du Haut Moyen Âge*(London and Paris: Thames & Hudson, 1993[1st ed. in English 1964]), p. 62.

52) Jean Porcher, “Les manuscrits à peinture”, p. 160. 산타 콘스탄차는 현존하는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의 대표적인 분묘건축물로서, 350년경에 건립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딸 콘스탄티나의 묘당(무덤 교회)이다. 이 묘당의 천장을 장식하고 있는 포도수확 장면은 지중해 문명권의 전통적인 이교도 도상을 그리스도교화시켜 수용한 사례 중 하나이다. 포도수확 장면은 그리스도교인들에게는 예수의 포도밭과 성체배령,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혈을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산타 콘스탄차 묘당에 안치된 콘스탄티나의 석관도 포도 수확 장면을 묘사하는 부조로 장식되어 있다. 산타 콘스탄차 묘당과 포도수확 장면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는 박성은, 『기독교 미술사: 중세 시대의 건축·조각·회화』(대한기독교서회, 2008), 38-41쪽; 앙드레 그라바 지음, 박성은 옮김, 『기독교 도상학의 이해』(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63-64쪽.

의 영향은 다른 부분에서도 곳곳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성목요일의 본기도 (collecta)를 시작하는 대문자 D 속의 윗부분은 최후의 만찬을 묘사하고 있는데(fol. 44v), 그리스도와 열 두 제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다리의 사자 모양 장식은 고대 미술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⁵³⁾ 또한, 『드로고 전례서』 표지의 상아 부조 등에서도 고대 로마제국 말기의 초기 그리스도교 미술의 영향이 보인다.⁵⁴⁾ 그런데, 이러한 로마 문화의 수용 혹은 재해석은 초기 그리스도교 미술 모티브의 단순한 모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계승이라는 정치적, 문화적인 함의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판 1) Paris, BnF, lat. 9428, fol. 58
(『드로고 전례서』, 9세기 중엽)



도판 2) 산타 콘스탄차 묘당의 모자이크(로마, 4세기 중엽)

카롤링 군주들은 로마를 중요한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인 모델이자 원형으로 삼았다. 물론 이들이 지향했던 로마는 고대 말의 기독교 로마 문명이었다. 로마적인 질서와 규범 및 가치관으로의 회귀 노력은 피피누스와 보니파키우스의 시대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앞서 언급한 전례의 로마화 외에도 언어와 행정, 교육에서의 로마화 정책이 추진되었다.⁵⁵⁾ 카롤루스 대제가 문예진흥에

53) Marie-Pierre Laffitte et Anne Pedernana, *Trésors carolingiens. Livres manuscrits de Charlemagne à Charles le Chauve*, catalogue d'exposition(Paris: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2007), cat. 53, pp. 194-195.

54) John Beckwith, *L'art du Haut Moyen Âge*, pp. 64-65.

55) Michel Banniard, *Viva voce. Communication écrite et communication orale du*

힘쓴 것도 고대 로마제국 황금시대의 아우구스투스를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치세를 빛내기 위해서였다. 그렇지만, 갈리아에서는 고전연구에 능통한 학자를 찾기 힘들었기 때문에, 앵글로색슨인인 엘킨이나 롱고바르디인 파울루스 디아코누스를 아헨의 궁정에 초빙하였던 것이다.⁵⁶⁾ 카롤루스 대제의 후임자들의 치세에서도 로마 문명의 부흥운동이 중단되지는 않았다.⁵⁷⁾ 카롤링 제국 시대에는 로마 문명의 상징적인 계승이 예술적인 모방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로마시대의 석관을 재활용하는 행위를 통해서 표출되기도 하였다. 840년 6월 20일에 루도비쿠스 경건황제가 사망하자, 그의 시신은 드로고 대주교의 주관 하에 메스의 생타르놀(Saint-Arnoul, 성 아르놀푸스) 대수도원 부속교회에 매장되었다.⁵⁸⁾ 프랑스 학자 마리 앙투아네트 쿤(Marie-Antoinette Kuhn)은 루도비쿠스 경건황제의 시신이 안치된 관이 로마시대의 석관을 재활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그녀는 이 석관이 원래 고대 로마교회의 고위 인사가 묻혔었던 관으로서, 루도비쿠스 본인이 이를 황제의 관으로 충분히 사용될만하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자신의 시신을 안치하기를 원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⁵⁹⁾

『드로고 전례서』에서 나타나는 고대 로마 미술의 영향은 로마 문명에 대한 동경과 로마화 정책에 의한 권력의 고양 추구가 카롤링 군주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카롤링 르네상스”는 카롤루스 대제 같은 개인에 의해서 주도되었다기보다는, 여러 성직자들과 문법학자들, 장인

IV^e au IX^e siècle en Occident latin(Paris: Institut des Études Augustiniennes, 1992), pp. 333-334.

56) Jean Adhémar, *Influences antiques dans l'art du Moyen âge français*(Paris: Éd. du CTHS, 1996), p. 8.

57) 그런데, 루도비쿠스 경건황제는 어린 시절 에보(Ebo)의 영향으로 고대의 시(詩)를 배우기는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금방 흥미를 잃었고, 부친인 카롤루스 대제만큼 고전의 문예부흥에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다. 샤를 대머리왕의 치세에 다시 어느 정도 고전문화의 부활운동이 꽃을 피우기는 했지만, 9세기 중엽 이후 카롤링 제국에서는 정치적인 투쟁으로 인한 혼란과 성직계층의 이교 문학에 대한 비판 등으로 고전의 부흥운동이 쇠퇴하였다. *Ibid.*, pp. 13-15.

58) Astronomer, *Vita Hludowici imperatoris*, ed. and trans. Ernst Tremp, MGH SRG 64(Hannover, 1995), chap. 63, p. 550.

59) Marie-Antoinette Kuhn, “Le sarcophage de Louis le Pieux: une oeuvre du Ve siècle sortie des ateliers d'Arles”, *Mémoires de l'académie nationale de Metz* (1998), pp. 165-181.

들이 함께 참여하여 일구어낸 집단적인 문화운동이었다.

2. 새로운 서체의 창조

로마 문명에 대한 동경과 지향은 카롤루스 대제 시대의 문자정책에서도 나타났다. 문자의 로마화를 위한 노력은 우선 로마식 대문자체의 사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795년 12월 25일 교황 하드리아누스 1세가 임종하였고, 카롤루스는 교황을 기리기 위한 묘비를 몸소 주문하였다. 오늘날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아트리움(atrium)에 보존되어 있는 이 묘비는 투르(Tours)에서 제작되었으며, 당시에는 별로 쓰이지 않던 로마식 대문자체가 사용되었다.⁶⁰⁾ 오늘날까지 현존하는 카롤링 시대의 묘비는 주로 황실 사람들의 것이며, 그 중에는 로마 대문자체를 모방한 것들도 있다. 840년경에 투르에서 제작된 아델베르가(Adelberga)라는 여인의 묘비에도 로마 대문자체를 모방한 서체가 사용되었다. 현재 투르의 투렌 고고학 박물관(Musée de La Société Archéologique de Touraine)에 보존되어 있는 이 묘비의 글자에는 납이 덧씌워져 있는데, 이는 글자 위에 금속을 덧씌운 로마시대 개선문의 각명(刻銘)을 모방한 것이다. 그렇지만, 로마시대의 조화롭고 균형 잡힌 각명에 비해서 카롤링 비문의 대문자체들은 대단히 거칠고 불균형하게 보인다.⁶¹⁾ 반면에 카롤링 시대의 수사본에서는 고대 로마 각명의 모방 및 서체에서 질서와 안정성을 추구하는 로마적 전통으로의 복귀가 비문에서보다는 더 확실하게 나타났다.⁶²⁾ 그렇지만 이러한 서체에서의 복고적 경향은 로마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에 기반하고 있었고, 프랑크인들은 곧 고전적인 각명들을 변화시켜 독자적인 대문자를 만들어냈다.⁶³⁾

한편, 카롤링 시대의 서체를 대표하는 것은 “카롤링 소문자체(minuscule caroline)”라 불리는 새로운 글자체였다. 카롤링 소문자체는 로마 서체와 같

60) Nicolette Gray, *A History of Lettering. Creative Experiment and Letter Identity* (Boston [Mass.]: David R. Godine, 1986), pp. 67-69, Fig. 67. 이 책의 한국어 번역본 니콜레트 그레이, 『레터링의 역사: 창조적인 실험과 글자의 독자성』(창지사, 1994)은 번역에 문제가 많으므로 참조를 하고자 한다면 유의할 필요가 있다.

61) *Ibid.*, p. 70, Fig. 69.

62) Patricia Stirnemann et Marc H. Smith, “Forme et fonction des écritures d'apparat”, pp. 72-74.

63) Nicolette Gray, *A History of Lettering*, pp. 70-71.

은 질서와 조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서체로서, 로마화의 노력이 새로운 문화 창조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의 그래픽적인 차원에서 문자의 규격화(régularisation) 경향은 피피누스의 치세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새로운 동향은 이후 카롤링 소문자의 등장으로 귀결되었다.⁶⁴⁾ 8세기 말에 등장한 이 새로운 글자체는 간소화되고 규격화된 서체로서 글자의 균일성과 명료성을 추구함으로써 시각적인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였다. 카롤링 소문자 덕분에 텍스트의 가독성이 향상되었다. 서체의 개혁에는 카롤루스 대제의 후원 하에 엘퀸이 추진했던 라틴어 개혁, 다시 말해서 고대 라틴어로의 복귀를 추구하면서 교회 성직자들이 올바른 라틴어를 사용하도록 촉구하는 언어정책이 일조하였다고 평가된다.⁶⁵⁾ 이에 대해 장 클로드 슈미트(Jean-Claude Schmitt)는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카롤링 시대의 개혁[카롤링 소문자의 출현]은 문자에 다시 균일성 및 오랫동안 상실되었던 일종의 시각적인 완벽성을 이상적으로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엘퀸에 의해 동시에 수행되었던 라틴어 개혁에 글자의 그래픽을 일치시켰다.⁶⁶⁾

그렇지만, 이러한 문자개혁이 제국의 모든 수도원에 일괄적으로 개혁된 서체를 사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카롤루스 대제의 치세에는 아직 프랑크 제국에서 사용되었던 서체가 전반적으로 통일되지 않았고, 지역에 따른 다양성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베른하르트 비쇼프(Bernhard Bischoff)는 이 시기를 “카롤링 소문자의 제1단계”라고 불렀다. 이 시기의 초기 카롤링 서체는 지방 수도원의 스크립토리움(이른바 “local schools”)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졌다. 이후 810-820년경부터 프랑크 왕국 수도원들의 스크립토리움에서 카롤링 소문자체를 널리 쓰게 되었다. 비쇼프는 이 시기를 “카롤링 소문자의 제2단계”의 시작으로 보았다.⁶⁷⁾

64) Jean-Pierre Caillet, “Le livre et l’art des Carolingiens dans la culture de l’Occident médiéval”, Marie-Pierre Laffitte et Anne Pedergnana, *Trésors carolingiens*, p. 11.

65) Bernhard Bischoff, *Latin Paleography. Antiquity & the Middle Ages*, trans. from the German[2nd rev. ed. 1986](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 112.

66) Jean-Claude Schmitt, “Lire, écrire, chanter dans l’Europe médiévale”, 『유럽사회 문화』, 제11호(2013.12), 104쪽.

67) Bernhard Bischoff, *Latin Paleography*, pp. 112-114.

요컨대, 카롤루스 대제의 공헌은 자신의 주변에 엘퀸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을 불러 모음으로써, 이들에 의한 새로운 규범적인 서체의 탄생에 기여한 데에 있다. 이러한 발전은 “이후 1,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고 현대에 사용되는 폰트의 근본이 되었다고 평가받는다.⁶⁸⁾ 그렇지만 문자개혁은 전례개혁만큼 카롤루스 대제가 의식적, 의도적으로 추구한 정책은 아니었고, 당대 엘리트층의 집단적인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였다. 이들은 텍스트 그래픽의 새로운 규범도 만들어냈다. 이 시대의 “정형화된 그래픽적인 프로토클”(Stirnemann과 Smith)은 투르의 생마르탱 대수도원에서 제시되었다. 여기에는 엘퀸이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800년경에 제작된 『엘퀸 성서』(*La Bible d'Alcuin*)에는 서체의 구분에 의한 텍스트의 위계가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Zürich, Zentralbibliothek, C. 1). 표제는 채색된 대형 대문자, 시작 글귀는 언설체(혹은 반언설체)로 쓰였으며, 텍스트 본문에는 카롤링 소문자체가 사용되었다. 책을 마무리를 알리는 글(explicit)이나 그림 설명 글귀, 그리고 일반적인 표제에는 루스티카체가 사용되었다.⁶⁹⁾

그렇지만 모든 카롤링 시대의 사본들이 이렇게 정형화된 규범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790년경에 만들어진 『젤론 전례서』에는 언설체와 더불어 여러 종류의 소문자체가 혼합되어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는 서고트왕국에서 사용되던 서체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도 있다. 또한, 붉은 색 잉크로 쓴 표제(朱書, rubrique)가 소문자체로 쓰이기도 하고, 대문자체에 언설체를 혼합하여 쓰는 등 서체의 사용에 균일성과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심지어 일부 라틴어 기도문들은 그리스 알파벳으로 쓰여 있기도 하다(143, 143v, 264).⁷⁰⁾

9세기의 문자개혁을 거친 이후에 제작되어 엘퀸에 의해 제시된 문자규범의 영향을 받은 『드로고 전례서』의 경우, 전 시대에 만들어진 『젤론 전례서』에

68) 페르디난트 자임트 지음, 차용구 옮김, 『중세, 천년의 빛과 그림자: 근대 유럽을 만든 중세의 모든 순간들』(서울: 현실문화, 2013년), 35쪽.

69) Patricia Stirnemann et Marc H. Smith, “Forme et fonction des écritures d'apparat”, pp. 73-74.

70) E. A. Lowe, *Codices Latini Antiquiores: A Paleographical Guide to Latin Manuscripts Prior to the Ninth Century, Part V: France: Paris*(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1), No. 618; 그리스 알파벳으로 기도문이 쓰인 사례(fol. 143)는 Marie-Pierre laffitte et Anne Pedernana, *Trésors carolingiens*, p. 81의 도판을 참조할 것.



도판 3) Paris, BnF, lat. 9428, fol. 15v-16r(『드로고 전례서』, 9세기 중엽)

비해서 문자의 그래픽적인 측면에서 더욱 정돈되고 안정된 느낌을 주고 있지만, 서체의 사용에서 항상 엄격한 규칙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 전체가 장식문자나 금니사경(金泥寫經, chrysographie, 달걀 흰자 또는 고무액에 금가루를 넣어서 만든 잉크로 쓰는 방법)으로 쓰인 미사 전문을 보면, 신과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들은 로마 대문자체 장식문자(TE IGITUR CLEMENTISSIME, fol. 15v-16)[도판 3] 혹은 로마 대문자체 금니사경으로 쓰이고 있다(PATER, PER IESUM CHRISTUM, FILIUM TUUM, DOMINUM NOSTRUM, fol. 16v). 그리고 나머지 페이지의 금니사경 기도문구들은 언셜체로 쓰이다가(fol. 17-20), 마지막 두 페이지의 본문만 루스티카체로 쓰였는데(fol. 20v-21),⁷¹⁾ 기도문이 나뉘는 부분이 아니라 같은 문장이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갑자기 서체가 바뀌고 있다.⁷²⁾ 필경사가

71) 본문 전체가 루스티카체로 쓰인 부분에서도, “기도합시다(Oremus)”라고 사제가 청중에게 말하는 대사는 언셜체로, 그리고 “PATER NOSTER(우리 주님)”라는 단어는 장식문자와 로마 대문자체로 강조되어 있으며, 각 구절의 시작 부분 역시 여백에 금니사경된 커다란 크기의 로마 대문자체로 첫 머리글자를 표시하여 시각적으로 강조하였다.

72) Fol. 20-20v에서 이어지는 문장인 “Et prestat nobis…”에서 Et는 언셜체로, prestat

서체를 바꾼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페이지 레이아웃의 상태로 볼 때 한정된 공간에 더 많은 글자를 넣기 위해서가 아니었는가 짐작된다. 마지막 두 페이지에서는 서체만 바뀐 것이 아니라, 글자 사이의 간격도 더 촘촘해지고 약어도 더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다른 여러 부분에서 『드로고 전례서』는 엘킨에 의해 제시된 문자규범을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다양한 레이아웃과 새로운 그래픽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특징적인 점은 장식문자에서 찾을 수 있다.

3. 『드로고 전례서』의 장식과 이야기 머리글자

중세 시대에는 성서나 전례서와 같은 수사본의 장식이 극도로 발전하였다. 카롤링 제국의 군주나 주교들을 위해 제작된 종교서적들의 표지는 커다란 보석과 진주, 상아, 크리스탈, 금과 은 등으로 치장되었고, 성당의 보물들과 함께 보관되었다. 가장 귀한 책들은 황제권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수난(그리스도의 붉은 피)을 상징하는 자주색으로 물들인 양피지에 금니사경이나 은니사경(銀泥寫經, argyrogaphie)으로 글씨를 쓰기도 하였다. 교회의 보물 수장고에 보관되던 이러한 귀한 책들은 교회에서 독경대나 쿠션 위에 놓여서 전시되는 경우도 있었고, 특별한 축일에는 종교행렬의 선두에서 사제가 양 손에 들고 행진을 하기도 하였다.

『드로고 전례서』의 표지는 나무판 위에 조각을 한 상아판을 덧붙여서 만들었는데, 당대의 다른 전례서나 북음서들처럼 원래 가장자리에 금과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1567년 샤를 드 로렌(Charles de Lorraine) 추기경이 위그노 교도들과 전쟁을 벌였을 때, 그는 당시 성당의 제의방(祭衣房, sacristy)에 보관되어 있었던 카롤링 시대의 서적들을 담보로 잡히고 전쟁비용을 마련하였는데, 이 때 작성된 목록에 『드로고 전례서』에 대한 묘사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 “주교의 축도(祝禱)를 담은 서적으로,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커다란 가장자리 테두리가 아직 남아 있으며 그 가운데에 세공을 한 상아판이 있음 (ung livre des bénédictions episcopales encore a large bourd d’or et pierreries, le milieu d’yvoir taillé).” 이 때만해도 표지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던 이 사본은 1569년 이후 새롭게 제본되면서 금과 보석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상아판들은, 비록 순서가 뒤섞인 상태로나마 남아

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⁷³⁾

이러한 장식은 단순히 책 주문자(소유자)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이 창조한 우주의 질서와 영적인 아름다움을 재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중세인들에게 “장식(l'ornement)”이란 단순히 치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철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중세미학자 장 클로드 본(Jean-Claude Bonne)은 라바누스 마우루스(Rabanus Maurus, 780년경-856년)의 『우주론』(*De universo*)을 인용하며, 카롤링 시대에 “장식”이라는 단어가 지니고 있었던 의미에 대해 설명하였다.

중세 시대에 *ornamentum*은 어떤 사물이 잘 작동하도록 하는 유용한 장비(집의 가구나 병사의 무기)라는 고전라틴어의 의미를 보존하고 있었다. 또한, 이 용어는 (인간의 미덕이나 그의 영혼과 같이) 비물질적, 영적인 현실을 지시하는데에도 사용되었다. 마찬가지로, *ornatus*는 그리스어 *cosmos*의 라틴어로 번역어로 인식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우주의 요소들(*éléments*)에 신이 부여한 질서를 의미하였다. 그리하여, 이 단어가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이 결합된 것이다.⁷⁴⁾

또한, *ornamentum*은 전례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건이나 의복을 지시하는 동시에, 확장된 의미로 성상, 성화, 성유골함 등 교회에 비치된 모든 사물들을 일컫기도 하였다. 종교적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의미는 속인사회에까지 확장되어, 국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레갈리아(*regalia*)처럼 사회적인 지위를 표시하는 사물들도 *ornamentum*이라는 단어로 불리기도 하였다.⁷⁵⁾ 이러한 사물들에 새기거나 그려진 장식들은 의례적인 기능과 더불어 극도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으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기 위

73) Marie-Pierre Laffitte et Anne Pedergrana, *Trésors carolingiens*, p. 191. 상아판의 부조 중에서 앞표지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주교가 집전하는 전례의 모습을, 그리고 뒤 표지는 성체성사 거행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74) Jean-Claude Bonne, “Les ornements de l'histoire(à propos de l'ivoire carolingien de saint Remi)”, *Annales. Histoire, Sciences Sociales*. 51^e année, no. 1(1996), p. 43.

75) 때때로 *ornamenta regia*라고 불리기도 한 *reglia*는 왕관, 왕홀과 같은 권력의 엠블럼, 전례나 대관식과 같은 의식들에 사용되는 의복과 도구 등 국왕의 상징물들(*insignes royaux*)을 포괄해서 일컫는다. Cf. 중세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의 레갈리아에 대해서는 Danielle Gaborit-Chopin, *Regalia. Les instruments du sacre des rois de France: les honneurs de Charlemagne*, catalogue d'exposition(Paris: Éd. de la Réunion des musées nationaux, 1987)을 참조할 것.

한 것이 아니라, 이마고(*imago*)의 가시성(*visibilité*)과 마찬가지로, 사물의 본질을 드러내는 데에 있었다.⁷⁶⁾ 요컨대, 중세의 “장식”은 우주의 질서와 영적인 본질을 드러내는 매개물로서 신권(神權)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지상에서 신을 대리하는 교회와 군주들이 사용하는 경우 교권과 세속권을 상징하였다. 이러한 점은 코텍스의 표지 장식이나 양피지 낱장에 그려 넣은 장식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드로고 전례서』의 경우, 책의 장식들은 신권을 표상하는 동시에, 신과의 중개를 담당하는 주교의 권력을 상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책의 사용이라는 실제적인 상황에서, 장식은 책을 읽는 이에게 책의 각 구성 부분과 내용을 시각적으로 빨리 파악하도록 돕는 지시적인 기능도 지니고 있었다. 『드로고 전례서』는 미사전문, 주요 연중 축일과 성인 축일, 성인 공통 부분(Common of the Saints)⁷⁷⁾, 기원 미사(Votive Mass), 축도 및 성사 혹은 준성사의 의식(*ordines*)⁷⁸⁾에 관한 다양한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레고리우스 전례서가 갈리아 전례서와 다른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미사전문을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롤링 시대의 전례서들은 미사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인 성체성사를 담은 미사전문에 가장 신성하고 귀한 장식을 부여하곤 하였다. 『드로고 전례서』와 동시대에 만들어진 『코르비 전례서』(*Sacramentaire de Corbie*, Paris, BnF, lat. 12050)의 경우를 보면, 이야기 머리글자나 조형적 도상으로 장식되지는 않았지만, 미사전문

76) Jean-Claude Bonne, “Les ornements de l’histoire”, p. 45. Cf. ‘이마고’는 신학적, 인류학적,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신의 “형상”을 비롯하여 물질적(조형적), 정신적 이미지 등을 포괄한다. ‘이마고’의 개념에 대해서는 Jean-Claude Schmitt, “La culture de l’imago”, *Annales. Histoire, Sciences Sociales*. 51^e année, no. 1(1996), pp. 4-5를 참조할 것.

77) 전례서에서 성인 공통 부분이란, “본문”이라 불리는 전례 텍스트가 자체적으로 완전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은 성인들이나 축일들을 기리기 위해 시간전례 및 로마 미사 전례서에서 제시된 텍스트를 말한다. 주피언 피터 랑, 『전례사전』, 243쪽.

78) 중세 초 가톨릭 교회의 “의식을 위한 의례들(Ritual *Ordines*)”에 대해서 에릭 팔라초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중세 초에 전례서는 오늘날 우리가 성사나 준성사라 부르는 의례 행위들을 수행하는데 쓰이는 전례 텍스트를 극소수만 담고 있었다. 이러한 의례들(*ordines*)들은 몇몇 의식에 관한 것으로서, 주교들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고백(고해), 예비자들(*catechumen*)이 세례 전에 보는 시편, 병자에 대한 기름부음, 장례와 같이 사제들이 전례서를 참조하면서 자신의 교구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었다.” *Éric Palazzo, A History of Liturgical Books*, pp. 26-27.

전체가 자주색으로 물들인 양피지 위에 금니사경으로 쓰여 있다(fol. 6-11v).⁷⁹⁾ 『드로고 전례서』에서는 미사전문의 시작 부분인 공통 감사서문경(Praefatio communis)이 페이지 전면을 차지하는 건축물 장식 속에 루스티카체로 금니사경이 되어 있어서 시각적으로 금방 구별된다(fol. 14). 뒤이어 나오는 상투스과 베네딕투스(80)는 텍스트 전체를 가로지르고 있는 대형 V자 머리글자(fol. 14v)⁸⁰⁾와 텍스트 중앙에 십자가 모양으로 날개를 펼치고 있는 세라핌의 이미지(fol. 15)로 장식되어 있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TE IGITUR 페이지의 장식문자(fol. 15v-16)에 뒤이어 미사전문이 나머지 부분들(fol. 16v-21)이 금니사경으로 쓰여 있다.⁸¹⁾ 특히 TE IGITUR 페이지처럼 로마체 대문자에 십자가 사본에서 나타나는 과감한 장식을 부과⁸²⁾한 것은 로마 문화와 십자가 문화의 융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드로고 전례서』의 텍스트는 이야기 머리글자 38개⁸³⁾, 장식 머리글자(decorated initials) 176개⁸⁴⁾ 및 조형적인 이미지 1개⁸⁵⁾와 건축 조형물 장식 4개⁸⁶⁾, 그리고 금니사경을 한 다양한 크기의 로마식 대문자 등으로 구획되어 있다. 특히, 대형 장식문자와 이야기 머리글자들은 특별한 의미들을 담고 배치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사전문의 TE IGITUR 페이지의 중앙에 배치된 장식문자 T자는 구약성서의 희생제사를 묘사한 그림을 담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표상하고 있다[도판 3].⁸⁷⁾ 로라 켄드릭(Laura Kendrick)은

79) 『코르비 전례서』도 갈리카(<http://gallica.bnf.fr/>)에서 열람할 수 있다(검색일: 2014년 2월 4일).

80) 이 V자는 미사의 성체봉헌 장면을 묘사한 그림을 글자의 양 끝에 담고 있는 일종의 이야기 머리글자이다.

81) 미사전문에 사용된 서체에 대해서는 이 글의 3장 2절을 참조할 것.

82) Patricia Stirnemann et Marc H. Smith, "Forme et fonction des écritures d'apparat", p. 76.

83) Fol. 14v, 15v, 22v, 23v, 24v, 27, 29, 31, 32v, 34v, 38, 41, 43, 43v, 44v, 46v, 48v, 51v, 54, 56, 57, 58, 61v, 62, 63, 63v, 64v, 65, 66, 71v, 78, 83, 84, 86, 87v, 89, 91, 98v.

84) 그 중 3개는 페이지를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머리글자이며, fol. 16의 CLEMEN-TISSIME 페이지의 경우 12개의 글자를 각각 개별적인 장식문자로 셈한 것이다.

85) Fol. 15 상투스 텍스트의 세라핌 이미지를 말한다.

86) Fol. 10, 14, 51, 59.

87) T자안의 그림들은 아벨, 멜키세덱과 아브라함의 봉헌을 각각 묘사하고 있다. 이 장면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전조로서 제시된 것이다.

중세 수사본의 장식문자들이 때때로 텍스트를 해석하고 주석을 다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⁸⁸⁾ 『드로고 전례서』의 TE IGITUR 페이지의 경우, 장식 머리글자들을 감싸고 있는 식물 문양들이 문자에 생기를 불어넣고 “회화적인 변형(pictorial transfiguration)”을 일으키며, 그리스도가 문자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논평하였다.⁸⁹⁾ 그러한 점은 TE IGITUR 페이지(fol. 15v)뿐만 아니라, 그 맞은편에 이어지는 CLEMENTISSIME 페이지(fol. 16r)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드로고 전례서』에서 이야기 머리글자들은 주로 연중축일과 성인축일 부분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야기 머리글자는 그림의 시각적 서사성(visual narrativity) 덕분에 글자 자체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인들의 전기를 형상화시켜 전달한다. 그것들은 텍스트(기도문)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기보다는, 각 기도문이 어떤 축일에 해당되는지를 시각적으로 지시한다. 예를 들어, 연중 축일 중 부활절 본기도를 여는 문장인 “D(eu)s qui hodierna die per unigenitum tuum…(주여, 오늘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통하여…)”의 첫 글자 D는 그리스도의 부활 에피소드를 묘사한 그림을 담고 있다(fol. 58) [도판 1]. 한편, 『드로고 전례서』의 텍스트와 이미지(이야기 머리글자)에서 지역적인 정체성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 사본은 메스에서 특별히 숭앙을 받았던 성인들인 성 아르눌푸스(fol. 91-92v)와 성 고르고누스(fol. 93-93v)의 축일기도문들을 담고 있는데, 이 텍스트들은 원래 하드리아누스에는 없는 내용이다.⁹⁰⁾ 특히 성 아르눌푸스의 축일은 그의 기적담을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 머리글자에 의해서 강조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인 전기 외에, 이야기 머리글자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종류의 도상은 전례의식을 묘사한 부분인데, 성목요일 감사서문경(praefatio)⁹¹⁾에 삽입된 주교의 성유 축성(fol. 46v)이나 성토요일 감사서문경의 세례반 축성(fol. 51v) 장면은 주교의 직무를 시

88) Laura Kendrick, *Animating the Letter. The Figurative Embodiment of Writing from Late Antiquity to the Renaissance*(Columbus[Ohio]: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99). esp. Chapter 3: “Animistic Exegeses”, pp. 65-109.

89) *Ibid.*, pp. 83-85.

90) Wilhelm Köhler, in *Drogo-Sakramentar*, p. 27.

91) 현대어로는 ‘감사송’이라 번역한다. 미사 전문, 다시 말해서 성찬기도가 시작되는 부분을 말하며, 원래 미사는 이 감사송을 외면서 시작되었다. 로마식 전례에서는 각 전례 시기와 축일에 따라 고유한 감사송들이 있었다(가톨릭대사전 온라인판 <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search.asp>, 검색일: 2013. 11. 25).

각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주교의 직무는 이야기 머리글자들과 더불어 수사본 표지의 상아판 조각에서 이중적으로 강조되어 있다.

에릭 팔라초는 중세 전례서의 장식이 담당한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전례서 장식의 중요한 기능들 중 하나는 일련의 미사 기도문들(Mass formularies)을 통하여 전례주년의 구조를 강조하고, 의례들(ordines)의 텍스트를 더 돋보이게 함으로써 (전례) 의식의 구조를 강조하는 데에 있다. 장식적(ornamental)이거나 형상적(figurative)인 꾸밈(decoration)은 전례주년의 핵심적인 부분, 무엇보다도 연중 주기와 성인 주기의 가장 중요한 축일들을 시각적으로 강조한다.⁹²⁾

많은 경우 중세의 전례서에서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가 느슨하게 나타났고, 전례서에 삽입된 도상들은 텍스트의 내용을 정확하게 묘사하기보다는 텍스트에서 언급하는 축일과 연관된 성서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집전 사제의 머릿속에 관련된 기도문을 신속하게 환기시키는 일종의 “랜드마크” 혹은 기억의 실마리 역할을 하였다. 중세의 전례서들이 이미지를 통해 신학적인 담론을 창출해내는 경우는 드문 편이었지만, 예외적으로 텍스트에 주석을 다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다.⁹³⁾ 앞서 살펴본 TE IGITUR 페이지의 경우가 장식문자가 주석을 덧붙이는 역할을 할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드로고 전례서』의 경우, 사제가 기도문을 암송할 때 기억을 환기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시각적 지표들이 장식문자와 조형적 장식들에 의하여 강렬하게 배치되어 있다. 특히 미사전문 시작 부분은 이야기 머리글자와 조형적 이미지, 그리고 건축 구조물이 어우러져 두드러진 시각적 지표를 이루고 있다. 이것들은 단순한 ‘꾸밈 장식(decoration)’이 아니며 특정한 소리를 지시하지 않을 때도 있다. 요컨대, 미사 집전 사제에 의해 구술로 (내용의 이해여부와는 상관 없이) 청중(신도)들에게 전달되는 『드로고 전례서』의 텍스트(기도문)는 서체의 선택에서뿐만 아니라 장식문자와 조형적 장식들에 의해서도 각 부분이 구획되거나 특정한 텍스트에 특별한 강조점이 부여되고 있다. 이러한 “읽기”의 시각적인 지표들은 동시에 그 장식성에 의하여 영적, 종교적인 권위를 표상하고 있다. 이처럼 책의 장식과 장식문자들은 단순히 구술/문자의 구분 혹은 단선적인 구술에서 문자로의 이행이라는 도식으로 구획할 수 없는 영역

92) Éric Palazzo, *A History of Liturgical Books*, p. 59.

93) *Ibid.*, p.61.

에 속한 것이라 생각되며,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깊이있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카롤링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유산 중 하나인 『드로고 전례서』를 중심으로, 카롤링 시대의 전례개혁과 문자개혁의 영향이 코텍스의 서체와 이미지를 포함한 그래픽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러한 문제는 더 넓은 의미에서는 궁극적으로 권력과 문자의 관계와도 귀결된다. 종교를 중심으로 한 왕국의 통일 및 로마화를 추구했던 카롤링 왕조에서는 전례의식과 전례서가 성서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중요한 권력의 문화적인 매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피누스와 카롤루스 대제의 전례개혁은 전례양식과 전례서를 일원화, 규범화, 로마화함으로써 프랑크 왕국을 종교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추진되었는데, 이러한 교회개혁 정책은 언어개혁과 문자개혁을 함께 수반하였다. 특히 로마화를 지향한 문자개혁은 궁극적으로 로마 대문자체 장식문자, 카롤링 소문자, 그리고 이야기 머리글자와 같은 새로운 문화 창조로 귀결되었다. 또한, 『드로고 전례서』의 책표지 장식과 문자장식들은, 카롤링 시대의 다른 코텍스들과 마찬가지로, 책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우주의 질서를 창조한 신권과 지상에서 신을 대리하는 책 소유자(주교)의 권력을 표상하고 있다.

그런데, 카롤링 군주들이 추진했던 전례개혁의 로마화, 일원화, 규범화가 『드로고 전례서』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들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질문을 할 수 있다. 전례서야 말로 전례개혁의 성과 혹은 한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릴 보젤을 비롯하여 피피누스와 카롤루스의 전례개혁론을 지지하는 여러 학자들조차도 두 군주가 전례의 통일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카롤링 시대 전례개혁의 결과는 전통적인 갈리아 전례와 그레고리우스 전례가 혼합된 혼종적인 형태로 나타났고, 지역에 따른 다양성도 사라지지 않았다. 또한, 기존의 겔라시우스 전례서도 9세기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드로고 전례서』처럼 그레고리우스 전례서의 확장본인 하드리아눔에 바탕을 두고 지역적인 특성을 가미한 전례서들이 겔라시우스 전례서들을 서서히 대체해나갔고, 서체의 개혁도 느린 속도로 전파되었다. 더욱이 이야기 머리글자의 경우에는 카롤링 시대보다는 11-12세기부터 사본들

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카롤링 르네상스”의 한계 혹은 특성을 보여주는 일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드로고 전례서』의 경우, 그레고리우스 전례에 갈리아 전례의 전통이 섞여 있으며, 서체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면서도 여러 서체가 엄격한 위계의 구분 없이 뒤섞여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카롤링 시대의 문자개혁은 근대 국가들에 의해 추진된 문자의 규범화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군주(혹은 국가)나 지배계층이 미리 설정된 계획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문자규범을 제정(혹은 개정)하여 전국적으로 부과한 것이 아니라, 투르나 메스 등 여러 거점도시의 주교들과 필경사들을 중심으로 새로 고안된 글자체와 장식들의 사용이 시도되었고, 그 결과물이 서서히 전파되었다. 이러한 문자의 그래픽적인 개혁은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서체의 개혁, 띄어쓰기와 레이아웃의 발전 등 텍스트의 그래픽적 발전에 의한 텍스트의 가독성 향상과 더불어, 이야기 머리글자와 같은 장식문자가 발전하였다는 점은 중세인들이 문자를 시각적인 차원에서 인지하게 된 여러 징후들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야기 머리글자들은 12세기 이후 중세 사본에서 널리 사용되었고, 중세 코덱스 문화의 특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런데, 카롤링 문화는 로마 문명의 모방만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으며, 섬나라 지역의 문명(켈트 문화 및 앵글로색슨 문화)로부터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 카롤링 문화는 궁극적으로 갈리아 문화, 섬나라 문화, 그리고 로마 문화를 융합시킨 형태로 나타났는데, 문자문화에 있어서도 로마 문화 외에 켈트 및 앵글로색슨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글에서는 지면상의 한계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야기 머리글자의 발전과 그 문화적 함의에 대해서도 다루지 못했고, 『드로고 전례서』와 다른 전례서들을 비교하는 작업도 깊게 다루지 못했다. 이러한 주제들은 후속 연구의 몫으로 남겨놓고자 한다.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투고일자 2014. 1. 20 심사일자 2014. 2. 2 게재확정일자 2014. 2. 10〉

주제어 : 카롤링 르네상스(Carolingian Renaissance), 『드로고 전례서』(*Drogo Sacramentary*), 전례개혁(Liturgical Reform), 문자개혁(Reforms of Script and Lettering), 장식(Ornamentation)

〈국문초록〉

카롤링 시대의 전례개혁과 문자개혁: 『드로고 전례서』를 중심으로

이 혜 민

이 논문은 카롤링 시대의 전례개혁과 문자개혁의 결과 나타난 수사본의 그래픽적인 측면의 변화와 그 문화적, 정치적인 함의에 대해서, 특히 『드로고 전례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중세 시대의 전례서는 “카롤링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서적의 형태 중 하나로서, 권력의 매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드로고 전례서』의 장식과 장식문자들은 책의 주문자이자 사용자인 주교의 권위를 표상하고 있다. 또한, 이 사본의 레이아웃을 특징짓는 새로운 형태의 문자들(로마 대문자체 장식문자, 카롤링 소문자, 이야기 머리글자)은 당시 교양을 갖춘 지배계층이 추구하던 문화적인 로마화의 노력이 새로운 문화 창조로 귀결되는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카롤링 시대의 전례개혁은 전례의 로마화, 단일화, 규범화를 추구하였다고 평가되며, 언어개혁 및 교육개혁과 더불어 문자개혁을 수반하였다. 9세기 중엽에 제작된 『드로고 전례서』에서는 이러한 카롤링 시대 개혁의 성과 및 한계가 함께 나타난다. 그렇지만, 특히 이야기 머리글자와 같은 텍스트의 그래픽적인 측면에서는 중세 중기와 후기의 사본들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혁신이 나타났다.

〈Résumé〉**Les réformes carolingiennes et le *Sacramentaire de Drogon***

Hye-Min LEE

Cet article examine les changements graphiques des manuscrits, résultant des réformes de la liturgie et de l'écriture à l'époque carolingienne, aussi bien que leurs implications culturelles et politiques. C'est en particulier le *Sacramentaire de Drogon*, produit au milieu du IX^e siècle, qui est l'objet de notre analyse. En effet, le sacramentaire médiéval est un type de livre par excellence qui représente la "Renaissance carolingienne", et il a assumé un rôle du médium culturel du pouvoir. Les ornements figuratifs et les initiales ornées du *Sacramentaire de Drogon* représentent l'autorité de l'évêque qui est à la fois le commanditaire et utilisateur du livre. Et les nouvelles écritures utilisés dans ce livre—les capitales romaines ornées, la minuscule caroline et les initiales historiées—révèlent le fait que l'effort de la romanisation culturelle de la classe dirigeante cultivée a contribué à la création d'une nouvelle culture.

La réforme liturgique à l'époque carolingienne est considérée comme une recherche pour la romanisation, l'uniformisation, la normalisation. Elle a aussi accompagné la réforme de l'écriture avec les réformes de la langue et de l'éducation. Le *Sacramentaire de Drogon* exemplifie les résultats et les limites des réformes carolingiennes. En même temps, il montre une innovation dans l'aspect graphique, comme les initiales historiées, dont l'influence est marquée dans des copies postérieures du Moyen Âge.

〈Summary〉**The Carolingian Reforms and the *Drogo Sacramentary***

Hye-Min LEE

This paper examines the ways in which the reforms of liturgy and script affected graphical transformations of manuscripts during the Carolingian Era, and their cultur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The focus is on the *Drogo Sacramentary* which was produced in the middle of the 9th century. Indeed, the medieval sacramentary is a type of book par excellence which represents the “Carolingian Renaissance”, and it assumes a role of the cultural medium of power. The figurative ornamentation and the ornamented initials of the *Drogo Sacramentary* illumine the authority of the bishop, who was both the commissioner and customer of the book. Moreover, scripts and lettering used in the forms of the ornamented Roman capitals, the Caroline minuscule, and the historiated initials, show that the cultivated ruling class may have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a new culture by way of implying cultural romanization.

The liturgical reform in the Carolingian Era is considered as a pursuit of the romanization, unification, and normalization of the Frankish liturgy. It also accompanied the reforms of scripts and lettering, alongside the reforms of language and education. The *Drogo Sacramentary* exemplifies results and limits of Carolingian reforms. At the same time, it also reflects the innovation in graphical aspect, as the historiated initials do, which would later influence the production of manuscripts in the High and Late Middle Ages.